S#.13 / 주성의 자살 이후 / 주연의 집 현관문 / 오전

이른 아침 춘추복 차림에 후드집업과 가방을 메고 현관문에 쪼그려 앉아 낡은 운동화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는 주연. 주연의 뒤로 잠옷 차림인 주연의 엄마가 다가온다.

엄마

(방금 잠에서 깬 목소리로)

벌써 나가?

주연, 자신의 등 뒤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에 신발끈을 고쳐 매던 손을 멈칫하고는 대답한다.

주연

수능 얼마나 남았다고

(작게 한숨 쉬며)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엄마. 주연의 낡은 신발을 보고 잠이 달아난 표정과 못마땅한 말투로 주연을 향해 거침없이 대답한다.

엄마

야!... 신발이 그게 뭐야!

이런 거 신고 돌아다니면 밖에서 애미, 애비 없다고 욕한다니까

빨리 다른 거 신고가 빨리!

주연, 엄마의 눈치를 보다 마지못해 신발을 툭툭 벗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연

아…알겠어

주연, 신발장을 열고 머뭇거리다 운동화를 꺼내 신발을 신고는 현관을 나서며

주연

다녀올게요.